#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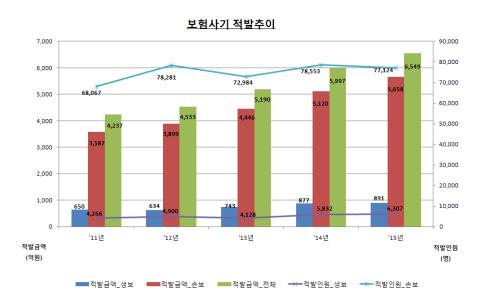
-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예측 알고리즘 개발 -

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 대학원 서덕성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 대학원 이경택 인하대학교 통계학과 김상진 인하대학교 통계 대학원 박희경

# INDEX

- Data Explore
- Modeling
- Model Assessment
- Summary

#### 보험사기 현황 및 문제점



※ 출처: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

매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(2015년에서 전년 대비 1.1% 감소)은 상승세가 별로 없는 반면, 적발금액은 매년 높은 상승세(2015년에서 전년 대비 9.2% 증가)를 보인다. 이에 대해, 보험사기의 적발은 잘 안 되지만, 보험사기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.

하지만, 현재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손해 및 한계(인력 부족, 비용의 한계, 불확실성 등)에 의해 어려움에 봉착해있다.

주제 정의 및 데이터 소개

: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(보험사고의 발생,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)를 고객 및 보험 관련 데이터를 통해,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

#### 사용 Data

- CUST (고객의 특성 Data)
- CNTT (고객들의 계약 속성 Data)
- CLAIM (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지급 속성 Data)
- FMLY (고객간 가족여부 Data)
- FPINFO (보험설계사 Data)



분석을 하기 위한, 데이터 정제 및 JOIN 필요

### 파생변수 생성 - ① 범주형 변수

데이터에서 보험이 여러 개가 있는 ID가 있으므로, 범주형의 변수 처리를 COUNT 형식으로 파생변수를 생성하였다. 또한, 변수에 NA가 있으면 새로운 범주형을 만들어 코딩하였다.

Ex) 한 고객(CUST\_ID=10)이, 재해에 대한 사고(ACCI\_DVSN)를 3번 당했을 때, 파생변수 사고구분\_재해에 대해서 "3"의 값을, 사고구분\_교통재해, 질병, NA에 대한 값은 "0"으로 처리한 고객 (CUST\_ID=13)이, 질병이 2번, 교통재해를 1번 당했을 때, 파생변수\_교통재해의 값을 "1", 파생변수\_질병의 값을 "2"로 처리한다.

| CUST_ID | 사고구분<br>(ACCI_DVSN) |  |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0      | 1 (재해)              |  |  |
| 10      | 1 (재해)              |  |  |
| 10      | 1 (재해)              |  |  |
| 11      | 2 (교통재해)            |  |  |
| 12      | 1 (재해)              |  |  |
| 13      | 3 (질병)              |  |  |
| 13      | 3 (질병)              |  |  |
| 13      | 2 (교통재해)            |  |  |



| CUST_ID | 사고구분_재해 | 사고구분<br>_교통재해 | 사고구분_질병 | 사고구분_NA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0      | 3       | 0             | 0       | 0       |
| 11      | 0       | 1             | 0       | 0       |
| 12      | 1       | 0             | 0       | 0       |
| 13      | 0       | 1             | 2       | 0       |

#### 파생변수 생성 - ② 수치형 변수

데이터에서 보험이 여러 개가 있는 ID가 있으므로, 수치형 변수 처리를 그 ID를 대표할 수 있는 MAX, MIN, MEAN으로 파생변수 생성.

단, 한 ID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, 부분에 NA가 존재한다면 무시하고 계산. 한 ID에 한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, NA라면 "-100"으로 처리.

Ex) 고객의 지급금액에 대한 파생변수로, 고객의 지급금액\_MAX, MIN, MEAN으로 파생변수 생성

| CUST_ID | 지 <del>급금</del> 액<br>(PAYM_AMNT)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      | 60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     | 31,900,000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     | 27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     | 4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     | 72,320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     | 17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     | 425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     | 31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| CUST_ID | 지급금액_MAX   | 지급금액_MIN | 지급금액_MEAN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0      | 31,900,000 | 270,000  | 10,923,333.33 |
| 11      | 40,000     | 40,000   | 40,000        |
| 12      | 72,320     | 72,320   | 72,320        |
| 13      | 425,000    | 170,000  | 301,666.67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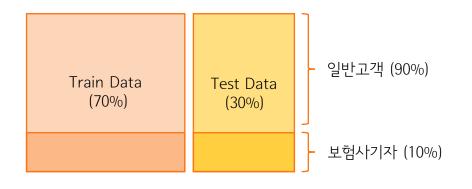
### 데이터 조인

CNTT(계약 Data), CLAIM(지급 속성), FMLY(가족 속성) Data를 고객 ID(CUST\_ID)의 기준으로 CUST(고객 Data)와 함께 JOIN 하여 분석용 데이터 생성.



| CUST_ ID    | 기존 변수 + 파생 변수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<br>2<br>: | 20,607 × 4,017 Data Frame |
| 20,606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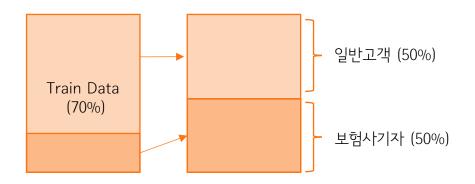
#### Model1 - 단일 모델 부스팅



전체 데이터에서 일반고객과 보험사기자의 비율(약 9:1)을 유지하며 Train : Test 데이터를 7 : 3으로 나누어, 앙상블(Ensemble)기법 중 하나인 부스팅(Boosting)기법을 통하여 예측

 $\rightarrow$  F-measure: 0.587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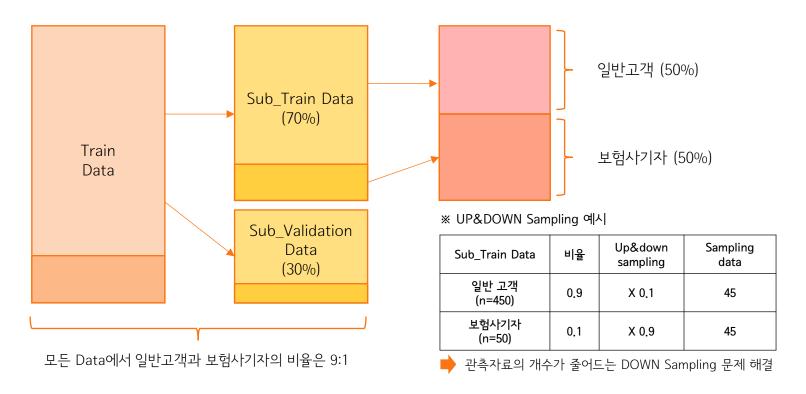
#### Model2 – Up&Down Sampling을 이용한 부스팅의 배깅



전체 중 오직 10%만이 보험사기자인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, 일반고객과 보험사기자의 비율을 5:5로 맞추는, Up&down Sampling을 시행하여, 부스팅을 여러 번 시행하여 예측. (일반고객에 대해서는 Down, 보험사기자에 대해서는 Up Sampling을 적용) → F-measure: 0 6211

#### Model3 – F-measure weighting을 이용한 Gradient Boosting Simulation

Step1> Train Data를 일반고객과 보험사기자 비율을 유지하여 다시 7:3으로 나눈다. (이를 Sub\_Train Data, Sub\_Validation Data라고 정의한다.) 이후, Sub\_Train Data에서 일반고객과 보험사기자의 비율을 5:5로 맞추기 위해 Up&Down Sampling을 실시한다.



#### Model3 – F-measure weighting을 이용한 Gradient Boosting Simulation

Step2> 일반고객과 보험사기자의 비율을 1:1로 맞춘 후(Step1), 변수를 ½개 무작위 선택하고, 이후 Gradient boosting으로 모델을 구축하여, Sub\_Validation Data에 예측 적합하여 F-measure를 기록하여 선택된 변수에 할당하고, 선출되지 않은 변수들은 0의 값을 할당한다.

Step3> Step2를 총 500회 반복하여 각각의 F-measure를 기록한 후 500번의 Simulation 기록의 평균으로 변수의 가중치를 부여한다.

#### ※ Gradient Boosting Simulation 예시

| Simulation      | 변수 1  | 변수 2  | 변수 3  | <br>변수 n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F-measure1      | 0.593 | 0.593 | 0     | <br>0    |
| F-measure2      | 0.573 | 0     | 0.573 | 0.573    |
| :               | :     |       |       | :        |
| F-measure500    | 0     | 0.456 | 0.456 | <br>0    |
| Mean(F-measure) | 0.571 | 0.552 | 0.521 | <br>0.53 |

Step4> Simulation을 통해 얻어진 변수의 가중치(Step3)를 통해, 부스팅을 이용하여 예측 → F-measure : 0.6341

#### Model4 – Text mining의 prob-weighting을 이용한 Gradient Boosting Simulation

※ Text mining의 prob-weighting 이란?

Step1> 각 문서(Document)를 행으로, 단어(Term)를 열로 가지는 행렬로, 해당 문서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유무(문서에 단어가 존재 - "1" / 존재하지 않으면 -"0")를 나타내는 Document-Term Matrix를 만든다.이때, 각 문서에는 문서의 해당하는 이진분류의 특성값이 있다.(ex. 긍정/부정, Yes/No)

|      | 문 | 서의 특 | 성 |
|------|---|------|---|
| d(1) |   | Υ    |   |
| d(2) |   | N    |   |
|      | : |      |   |
|      | • |      |   |
| d(n) |   | N    |   |

|            | Term 1 | Term 2 | <br>Term v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Document 1 | 1      | 1      | <br>0      |
| Document 2 | 1      | 0      | 1          |
| :          | :      |        | :          |
| Document n | 0      | 1      | <br>0      |

(n X v) size – sparse data

Model4 – Text mining의 prob-weighting을 이용한 Gradient Boosting Simulation

※ Text mining의 prob-weighting 이란?

Step2> 각 단어에 대해서, 문서의 특성과 2X2 분할표를 만들어, prob-weight를 계산한다.

$$(\vdash, prob weight_i = \log\left(1 + \frac{a_i}{b_i} \cdot \frac{a_i}{c_i}\right))$$

| Term 1 | 문서 Y       | 문서 N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단어 1   | <b>a</b> 1 | <b>b</b> 1     |
| 단어 0   | <b>C</b> 1 | d <sub>1</sub> |



prob-weight<sub>1</sub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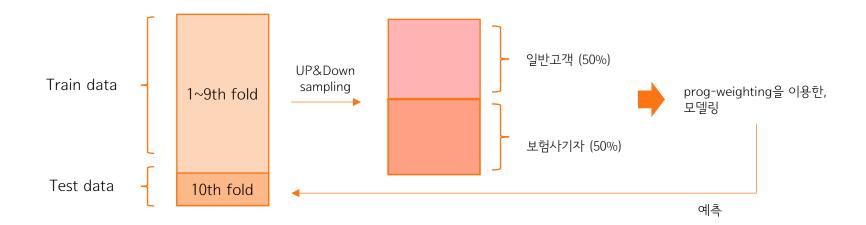
| Term v | 문서 Y | 문서 N          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단어 1   | a√   | b <sub>v</sub> |
| 단어 0   | Cv   | d√             |



prob-weight<sub>v</sub>

#### Model4 – Text mining의 prob-weighting을 이용한 Gradient Boosting Simulation

- Step1> Text mining에서 "문서→고객, 단어→변수, 문서의 특성→사기 유무"로 착안한다. 이때, 변수 중 이진분류가 아닌 연속형인 경우 변수의 "평균 이상 : 1 / 평균 이하 : 0"으로 이진 변수로 변형해준다.
- Step2> 10 Cross-Validation의 Train data에서 각 변수의 prob-weighting를 구하여, 변수의 가중치로 부여한다.
- Step3> Train data를 UP&DOWN sampling과 prob-weighting을 통해 데이터와 변수를 선택해, 20번 modeling을 하여 Test data를 예측한다. (Step1~Step3를 10번 반복) → F-measure: 0.6510



### Model5 – 데이터 Scoring을 통한 모델 안정성 확보

※ 기존 Cross Validation에서의 문제점 (ex. 5-fold Cross Validation\_1번째 Simulation)

| CV        | Fold 1 | Fold 2 | Fold 3 | Fold 4 | Fold5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F-measure | 0.58   | 0.68   | 0.69   | 0.71   | 0.64  |

#### F-measure가 유독 낮은 Fold가 존재 및 낮은 F-measure의 편차가 심하다.

→ 이유 : F-measure가 낮은 Fold의 나머지 Fold(Train data)의 샘플이 좋지 않다. (ex. Outlier 및 noise가 많이 있다.)



#### 해결방법

Step1> 각 Fold에 있는 관측치에, Fold에 해당하는 F-measure를 할당한다. (10번 Simulation 시행)

Step2> 각 관측치의 가중치로 관측치의 해당 F-measure의 평균을 이용한 가중치를 할당하여, 복원 5-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 모델링을 한다.

#### Model5 – 데이터 Scoring을 통한 모델 안정성 확보

X Sampling Example

| 고객    | Simulation 1        | Simulation 2  |  | Simulation 9 | Simulation 10 | F-measure 평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Obs 1 | F-measure 1_1(0.52) | F-measure 2_2 |  | F-measure9_3 | F-measure10_1 | F1           |
| Obs 2 | F-measure 1_2(0.62) | F-measure 2_1 |  | F-measure9_1 | F-measure10_1 | F2           |
| Obs 3 | F-measure 1_1(0.52) | F-measure 2_5 |  | F-measure9_3 | F-measure10_2 | F3           |
| Obs 4 | F-measure 1_4(0.60) | F-measure 2_2 |  | F-measure9_2 | F-measure10_5 | F4           |
| :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Obs n | F-measure 1_1(0.52) | F-measure 2_1 |  | F-measure4_4 | F-measure10_3 | Fn           |

🗶 F-measure a\_b: a번째 simulation의 해당 고객이 있는 b-fold의 F-measure (ex. F-measure2\_1: 2번째 simulation의 1-fold의 F-measure)

### 각 위

#### 각 관측치의 가중치

 $weight_i = 1 - \frac{f_i - \min(f_i)}{\max(f_i) - \min(f_i)}$  를 sigmoid 함수를 통해서, weight의 분산을 크게 했다.

( 각 변수의 weight를 넓게 퍼트려, Sampling 할 때 모형 적합에 좋은 관측치는 더 잘 뽑히고, 나쁜 관측치는 적게 뽑아, Sampling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→ 모형의 안정성 확보 )

Model5 – 데이터 Scoring을 통한 모델 안정성 확보

※ 가중치 Sampling의 효과

가중치 Sampling 사용 이전

| CV        | Fold 1 | Fold 2 | Fold 3 | Fold 4 | Fold5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F-measure | 0.60   | 0.63   | 0.69   | 0.73   | 0.69  |

평균: 0.668

문제점: 비정상적으로 낮은 F-measure가 존재하고, F-measure의 편차가 심하다.



가중치 Sampling 사용 이후

| cv        | Fold 1 | Fold 2 | Fold 3 | Fold 4 | Fold5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F-measure | 0.68   | 0.66   | 0.69   | 0.70   | 0.67  |

평균: 0.68

효과: 전체적으로 F-measure가 상승하며, F-measure의 편차가 완화되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.

 $\rightarrow$  F-measure: 0.6819

### **03** Model Assessment

F-measure<del>를</del> 통한 모델 비교

|        | F-measure |  |
|--------|-----------|--|
| Model1 | 0.5873    |  |
| Model2 | 0.6211    |  |
| Model3 | 0.6341    |  |
| Model4 | 0.6510    |  |
| Model5 | 0.6819    |  |

- Up&Down Sampling을 사용하지 않은 Model1의 효과가 유독 좋지 않은 것을 보아, 일반 고객과 보험사기자의 비율을 맞추어준 UP&DOWN Sampling의 성능이 좋다고 생각된다.
- 변수의 가중치를 조절하지 않은 (Model1, Model2) 과 변수의 가중치를 조절한 (Model3, Model4, Model5)를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변수의 가중치를 통한 부스팅의 효과가 좋았다.
- Cross-Validation에서 관측치들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Sampling한 Model5가 가장 높은 F-measure를 보인다.



F-measure가 가장 높은 Model 5 채택

### **04** Summary

- ① Up&Down Sampling을 통한 Class imbalanced data의 문제점 보완
- ② Ensemble 기법을 통한, 모형의 예측력 및 정확도 향상
- ③ prob-weighting 및 Boosting을 활용한 변수 선택
- ④ Data 별 Scoring(Data 별 Sampling probability를 부여)을 통한 모형 안정성 확보



최종 모형의 10 Cross-validation의 F-measure: 0.6819

# Thank You